평화가 경제다…비핵화 전제 남북경협 의지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의미

평화경제·경제공동체 꿈 실현때 경제 도약
철도·도로 연결사업 올해 착공식 목표
연락사무소, 상호대표부 전 단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남북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했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경제의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후속회담을 거쳐 현재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회담 합의문에는 착공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담겼지만, 북측은 최대한 신속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올해 내에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개성공단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가 향후 서울과 평양에 개설될 대표부의 전 단계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연합합창단과 인사 후 무대를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광복절 73돌 경축행사

8·15 광복절 73돌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경축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광복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고인석·이호상·민영진 애국지사의 후손들이 대통령 표창을, 민족정기 선양 등에 앞장서 온 공로로 박화담·이재연·김보름 씨와 광덕고등학교가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경축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우리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이기에 잘 살아야 하며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만 우리의 역사도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경축식을 했다.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전남지역 독립운동가 고(故) 김한필 선생께는 건국포장이, 고 박동준 선생께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 나라사랑 공로가 인정된 권준표·김명관·안병진 씨와 함평학다리고등학교가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역사인물 열쇠고리 만들기, 태극기 팬시우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행사가 마련되는 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광복을 경축하는 행사가 열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재선출

"정기국회전 교섭단체 어려워"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장병완(사진)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선출했다.

3선의 장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평화당 창당 당시 초대 원내대표로 추대돼 그동안 평화당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재선출된 장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이날 의총은 '8·5 전당대회 이후 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열렸다.

장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당 화합을 바탕으로 민생과 개혁, 평화, 민주라는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교섭단체 복원과 관련해선 "무소속 의원 두 분을 합류시키는 것이 주춤한 상태로, 정기국회 전까지 어려워 보인다"며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세 분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을 더욱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광복절 순국선열 추모 속 건국일 논쟁

민주 "해묵은 이념논쟁" vs 한국당 "정부, 정통성 부정"

여야는 15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일제히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지만 건국일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며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1948년 건국론'에 대해 해묵은 이념논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는 등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며 "더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고, 한국당은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해무익한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일'을 언급하며,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 없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는 축소 개최할 계획"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진보든 보수든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워라"며 "어려운 민생경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번영이 순국선열이 고대하던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라는 광복절의 참된 의미를 잊지 말고 되새기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이번 국회 소집에 앞서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 법안 TF'를 운영하는 등 8월 임시회내 주요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8월 국회 오늘 개막…민생·개혁입법 처리 진통 예고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향배가 주목되는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된다. 9월 정기국회를 보름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 모두, 저마다 관심을 둔 법안 내용 관철을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견해차가 커 심사 과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 또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도 목표로 내건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 등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8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 기간을 단순히 2배로 늘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임차인, 임대인이 '윈윈'하게끔 정부가 장기계약 체결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바른미래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강조한다. 법안 중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법의 경우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公國認家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새학기 기숙형 신설반 (선착순 30명 모집)

1. 기숙형 신학연구원 (주초반) : 주일 야간 ~ 화요일주간
- 대상 및 기간 : 신학생, 2년(코스 수료 후 준목 고시 응시자격 부여, 이수학점에 따라 기간 조절 가능)
2. 기숙형 평신도훈련원 (주말반) : 금요일 야간 ~ 토요일 주간
- 대상 및 기간 : 평신도, 3학기
- 교육 내용 : 성경개관, 구속사, 예배학, 전도학, 선교학, 설교학, 찬송학, 청지기론, 교회론 등
- 특전 :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지망할 경우 신학연구반 편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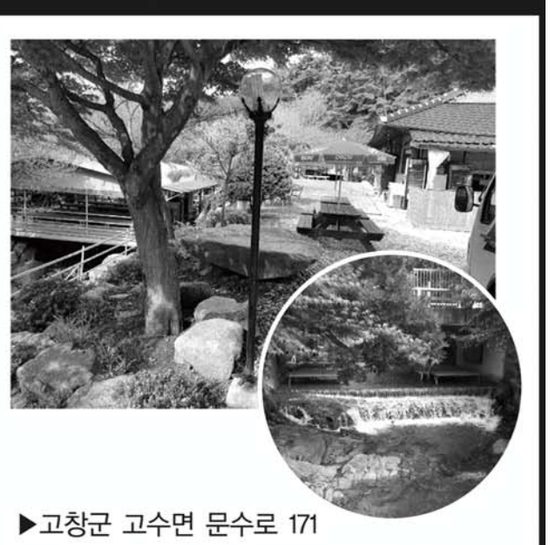
기존 상설반 (12년간 유지)
▸월요반 : 월요일 주간 ▸야간반 : 주일야간 + 월요일야간 ▸토요반 : 토요일 주간
▸화요목회자반 : 화요일주간 ※ 한 교회에서 3명이상 동시 등록시 30% 감면

모집기간 : 9월 개강전 수시모집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접수방법 : 본교 행정실 및 홈페이지, 등록금과 장학 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람.

2학기 개강일
▸토요반 : 9월 1일(토) ▸야간반 : 9월 2일(주일) ▸월요반 : 9월 3일(월) ▸목회자반 : 9월 4일(화)
신입생 M.T. : 8월 25일(토) 오전 11시
개강예배 :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광주바이블칼리지 http://gjbc.kr
광주국제기독스쿨 http://mygcds.com
상담문의 ☎061-381-0000/1365
010-9960-0091(행정실장)
010-3636-9200(교학처장)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성도리 산72)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